대구 법왕사 큰스님 사자후 '쩌렁쩌렁'

10년간 백고좌법회 13번 개최
올해 7월 18일~10월 29일까지
산사음악회 · 불교영화상영도

대구 수성구 법왕사(주지 실상)가 올해로 13회째 백고좌 법회를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한번 열기도 힘들다는 백고좌 법회를 1994년부터 연이어 13회째 열고 있는 법왕사. 그래서 법왕사는 대덕스님들의 법문을 늘 들을 수 있는 법향 가득한 도량으로 정평이 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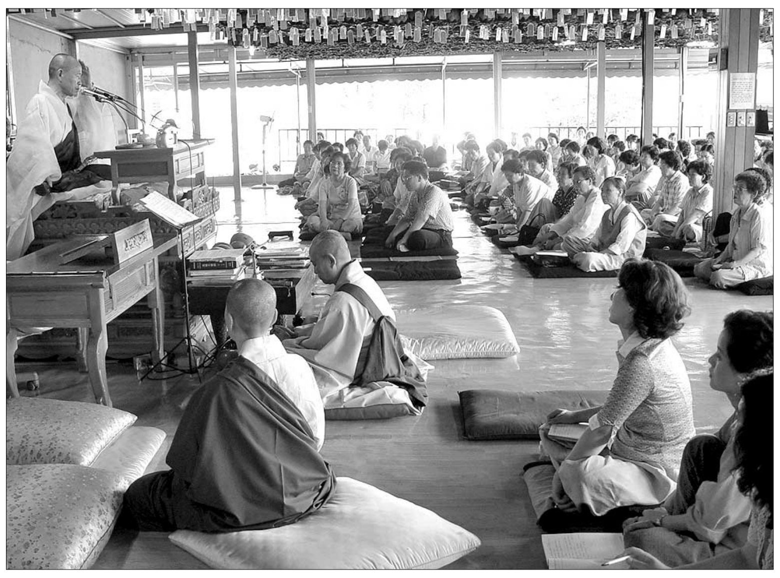
올해 법왕사 백고좌 법회는 7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1백일간 중진 · 대덕 스님 1백명을 초청,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인 <화엄경><법화경>에 대한 법문으로 진행된다.

7월 18일 열린 입재식에는 각성 스님(부산 화엄사 주지)이 <화엄경>의 대의를 주제로 법문했다. 각성 스님은 이날 "'대방광불화엄경'의 경 이름만 알아도 무량공덕이 되는 것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활용하는 것이 '대방광'이며, '불'은 대방광을 깨친 이며, '화엄'은 완성을 뜻하고 '경'이란 이러한 진리를 설한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의 부동삼매를 증득하고, 용심(用心)을 잘 해야 하며, 원을 세우고, 보현 행원을 잘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통일을 기원하며 이어져온 백고좌 법회는 7월 21, 22 23일, 법의 · 정락 · 성열 스님 등이 각각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에 대해, 27, 28일은 현웅 · 정무스님이 광명각품, 보살문명품에 대해 법문했다.

8월 9일은 혜능(해인사 율원장), 8월 11일부터 17일 사이에는 혜거(서울 금강선원장), 해월(동화사 승가대학장), 담월(제천백련사 주지), 지성(동화사 주지), 혜인(제주약천사 조실), 혜경(서울 무설정사), 보각(중앙승가대 교수) 스님이 차례로 법문한다.

10월까지 무진장(조계종 前 포교원장), 정련(부산 내원정사 주지), 철우(대구 파계사율원장), 도성(前 해인사 주지), 자광(김천 직지사 주지),도영(조계종 포교원장), 성공(부산 안양사 조실), 인환(서울 경국사 회주), 혜총(부산 감로사 주지) 도문(대성사 주지), 성타(대구불교방송 사장), 정관(부산 영주암 회주) 스님 등이 감로 법문을 내린다.



7월 18일 법왕사 법고좌 법회 입재식에서 200여 동참대중이 각성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특히 법왕사는 이번 법회기간 중에 산사음악회와 8월 18~19일에는 불교 영화 '큰둔'과 '오세암'을 상영하며 잠시 마음의 여유도 갖게할 예정이다.

10월 29일에는 대종사 혜정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수계법회로써 법회를 회향한다.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최근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국민들의 사기가 날로 저하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전 불법에 의지해 국난을 극복했던 선인들의 지혜와 정성을 잇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백고좌 법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053) 766-3747 http://www.bubwangsa.or.kr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불국토 청소년도량 '부산 청소년 쉼터' 수탁

성교육 · 진로 상담 · '해변 아웃리치' 진행

가정 폭력, 이혼 등의 가정문제를 견디다 못한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있다. '가출'한 아이들은 성매매, 비행 등에 노출되며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이처럼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가출 청소년들을 단기 보호하는 '부산광역시청소년쉼터'를 재단법인 불국토 청소년도량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됐다. 부산 교계에서는 처음이다.

7월부터 위탁 운영하게 된 '청소년쉼터(소장 범산)'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자 가출 청소년들 15명을 최장 6개월까지 보호하며 이들을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996년도 개소한 '청소년쉼터'는 24시간 개방돼 있으며 전화(051-756-0924)나 컴퓨터(www.shelter1004.org)상담을 거쳐 입소를 희망하는 가출 청소년들을 수용하고 있다.

가정집 분위기로 꾸며진 '청소년쉼터'는 1명의 상담부장과 3명의 상담원이 상주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신문스크랩, 성교육, 칼라믹스, 독서, 진로상담, 영화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들과 함께 홈커밍데이를 열고 있으며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가족상담과 학부모 교실을 열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급증하는 청소년 가출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광안리 바닷가에서 '해변 아웃리치'를 실시한다.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해변 아웃리치는 광안리해변을 찾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야외 영화상영, 가출예방캠페인 및 쉼터 홍보, 거리상담, 가출청소년 쉼터 인계, 설문조사 및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쉼터'를 위탁받은 범산 스님은 "가출의 원인에 따라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보호와 복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불국토의 역량을 모아 그들이 가정과 학교의 일원으로 원만한 삶을 누리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2004 자원봉사활동 발대식
맑고향기롭게 부산 모임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7월 20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2004 여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발대식'(사진)을 갖고 23일까지 부산시 전역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구현 부산시 행정부시장,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말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 박수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발대식에서는 부산 시내 중 · 고등학생 7백여명이 자원봉사자 선서를 낭독하고 4일간의 봉사에 들어갔다.

이들 청소년들은 부산점자도서관, 해운대 및 각 유명 해수욕장 청소, APEC홍보 활동 및 각종 봉사활동을 벌였다. **천미희 기자**

자비실천찬불가회 창립 10돌
법회 및 불우이웃에 장학금

합창단이 없는 사찰이나 행사 어디든지 달려가 찬불가 음성공양을 올리는 봉사활동을 펼쳐온 자비실천찬불가회(회장 한 대각행)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1994년 창립된 자비실천찬불가회는 10주년을 맞아 7월 22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흥교 스님을 법사로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장애인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등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자비실천찬불가회는 부처님가르침을 찬불가 음성공양으로 펴자는 창립취지에 걸맞게 특정 사찰에 등록하지 않고 찬불가 음성 공양을 원하는 곳이면 어느 사찰, 어떤 행사든 달려갔다.

음성공양 뿐만 아니라 상주 수해지구에 몇 트럭 분의 옷과 식품, 이불 등을 싣고 찾아갔는가 하면 김해교도소, 철원 군부대, 논산훈련소 위문공연 및 떡, 단주, 과일 등을 공양하기도 했다. 또 동지마다 부산역에서 노숙자와 독거노인을 위한 팥죽 나누기 행사를 열어 매년 천여 그릇의 팥죽을 보시하고 국악한마당 잔치를 열기도 했다.

한각행 회장은 "지난 10년처럼 앞으로도 자비를 실천하는 합창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인각사, 삼국유사 문화제 열어

군위 인각사는 7월 16일 제4회 일연 삼국유사 문화제 개막을 알리는 전국 청소년 백일장을 개최했다.

일연 성사의 역사의식과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전국 50여 초 · 중 · 고교생 4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일연성사와 불교적 이미지를 내포한 선구자, 북, 목탁, 구름 그리고 물고기 등 5가지 제목으로 글쓰기를 겨뤘다.

시상식은 오는 8월 23일 일연성사 다례제에서 거행되며, 대상에는 문화관광부장관상이, 장원에는 조계종총무원장상 등이 각각 수여된다. **배지선 기자**

"자연의 맛 · 향, 불교 배워 더 좋아요"

부산 홍법사, 사찰요리 특강 … 경력 10년 이상 주부들 몰려

부산 홍법사 사찰요리 강좌에 참여한 보살들이 무지개 케익떡에 올릴 꽃장식 배우는 모습.

찌는 듯한 더위가 연일 이어지자 입맛이 떨어지고 의욕마저 잃게 되는 요즘, 자연의 풍미가 물씬 풍기는 사찰 요리로 더위를 잊는 보살들이 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사찰요리 강좌가 열린 7월 21일, 20여명의 보살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사찰 요리 삼매에 빠져있었다. 요리 경력 최소 10년이 기본인 보살들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선생님께 이것저것 묻고 배우느라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다.

홍법사의 사찰요리 강좌는 신도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강사도 신도, 수강생도 신도다.

강사 정순자 보살은 롯데문화센터 창원점과 부산점에서 웰빙요리 강사로 활동하는 15년 경력의 요리 전문가. 사찰요리를 배워보고 싶어하는 신도들과 마음을 모아 강좌를 개설하고 보니 신청자가 늘어나 20명 정원이 꽉 찼다. 9개월 동안 이어지는 강좌라 수강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강좌를 더 개설해야 될 형편이다. 보살들은 사찰요리 강좌를 통해 오이간장 장아찌, 고추장아찌, 고추물김치, 증편 등을 만든다.

올 가을에는 수박으로 연꽃 만들기와 특별한 장 담그기 행사도 계획중이다. 신도들의 신청을 받아 된장, 간장을 홍법사 도량에서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좋은 콩을 사고 메주를 띄우고 간장, 된장을 함께 담그며 신도들간의 정도 다지고 사라져 가는 전통의 맛도 살려내기 위해서다.

정순자 강사는 "사찰 요리는 오신채를 쓰지 않고 재료의 맛을 충분히 살려주는 제철 요리"라며 "앞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요리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사찰 요리 시간이 단순히 요리 배우는 시간이 아닌 음식을 수행을 위한 약으로 여겨 소중히 여겼던 불가(佛家)의 정신을 되살려 내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환경 5개단체 환경차관 면담
해인사 불사 심의 중단 요구

환경운동연합 소속 5개 단체 대표들이 해인사 불사 관련 심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7월 20일 환경부 박선숙 차관을 만났다.

환경운동연합 대표들은 면담에서, "해인사에서 불사검토협의회의 논의가 끝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심의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현재 환경부에 해인사 불사 관련 서류가 접수된 것이 없다"며 "행정적 심의 여부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환경운동연합 대표들은 이어 "환경단체들이 민간 조사단을 구성해 해인사 불사 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도 부탁했다.

5개 환경운동연합 소속단체들은 앞으로 문화재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도 방문해 이와 같은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에는 중앙 환경운동연합 박진석 정책실장, 대구 환경운동연합 문창식 운영위원장, 마창 환경운동연합 이민식 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유신 기자**

육해공군 예비역 군법사회 군종교구 관련 성명서

젊음을 군 포교에 바친 한국의 포교전사들의 모임인 우리 예비역 군법사회는 지금 진행 되 가고 있는 군종교구의 입법 예고안을 바라보며 심히 답답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군포교사의 전력이 마치 실미도 공작원 같은 대접을 받는 위기감이 들어 육해공군 예비역법사들은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1. 군승 재임 중 승려법상의 선거권 박탈은 헌법의 기본권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일반 사병도 선거권이 있는데 군 최고위 특과장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런한 시각은 군승을 공작원으로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시각이다. 즉각 승려법의 기준으로 군승을 바라보고 선거권을 부여하라.

특별교구법10조 : 군승에 대하여 승려법 제 33조의 선거 및 피선거권은 군승 복무기간 동안 제한한다.

2. 그리고 결혼을 인정한 군승의 제대 후 보장이 하나도 없다. 현재 재출가 한 스님 몇은 출가 년도를 상실한 채 제대 후 다시 출가한 스님이므로 과거의 군포교 공적을 잃어버린 스님들이다.
이것은 종헌 종법에 법계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출가 자체를 삭제한 것으로 종헌을 무시한 폭거이다. 우리는 실미도 요원이 아니다.
즉각 재 출가 한 스님들의 출가년도를 인정하라.

종헌9조 : · · · · 독신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무수행 완료 동시 지계구분을 재심하여 향유 법계(비구계 만을)를 승서 또는 몰수 할 수 있다.

3. 특별교구법 제4장 상임위원회법은 현역 군승과 예비역 군승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현재 군불교 위원회보다 못한 종단 하수인에 불과하다. 즉각 예비역 법사와 현역으로 군종교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특별교구법 18조 ② : 상임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총무원 총무부장, 총무원 기획실장,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부주지, 국방부 및 육해공군 군종감실 선임 군승 4인과 군승회의에서 선출된 군승 6인 및 총무원장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승려로 구성한다.

4. 제7장 포상 및 징계는 온통 징계 조항만이 가득하다.(26조에서 29조까지) 이 조항은 단지 승려법에 준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5. 군승 근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라.

예를 들면 10년 근무자에게는 13년의 법납을 인정한다거나, 본사 상임포교사 임용, 혹은 종무원이나 주지 임명권에 우선권을 주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대한민국 육해공군 예비역 군법사회 일동